

## 주말 아롱아롱 세미나 1주차 <공감> 발제문

by 우산쓰기 싫어서 어제부터 비 맞은 나눅

언제나 우리는 관계 맺기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감이라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불편함, 어떤 소통안됨도 공감이라는 말로 은폐시켜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군가가 생각 하는 공감, 나는 너에게 공감해 라는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되고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리고 공감이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공감'하기를 위한 첫걸음일 것 같다. 여성주의적으로 공감하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성주의가 수없이 쓰이는 공감이라는 말들에서 차이와 틈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공감하기위해, 공감을 고민하게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 가, 나의 기억들을 어떻게 보전되고, 발현되는가, 나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어떤 기억들과 그 기억에 대한 어떤 말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것 같다. 누군가의 경험에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든다거나, 그 사람의 경험을 나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경험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일이다. 누군가와 만나는 지점을 찾기위해서, 또는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을 나의 언어로 풀어내야 하고, 내 경험을 둘러싸고 있는 벽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타인의 경험과 마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의 기억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몸에 남겨진 기억, 우리는 언어화 할 수 없었던 그 기억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때로는 사소한 습관으로 치부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경험들은, 기억들은 몸을 통해 나타난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감정들을 말로 표현할 때, 당신은 중요한 감정이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 감정해소가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당신이 호흡하는 방식, 먹는 방식, 느끼는 방식등 사실 당신의 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성폭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듯 우리의 몸에 남겨진 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상 행동으로 나타난다. 몸을 통해 알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 치유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공감에 대한 가능성이며, 그래서 타인의 경험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아주 특별한 용기'에서 저자는 몸에 대한 혐오에서 몸에 대한 사랑으로, 분열에서 당신의 몸안으로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껏 해왔던,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져왔던 몸과 정신의 분리에 반대하고, 나의 몸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몸, 우리가 기억을 담아내고 경험을 발현하는 우리의 몸은 이제껏 근대 이후 이분법에 의해 규정되었던, 정신보다 하등한 것으로써의 몸이 아닌 것이다. 나의 일부분으로써, 또는

나 자체로써 존재하는 몸과 소통하는 것은 몸이 정신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한낱 유기체 덩어리가 아니라, 나를 구성하고, 내 경험을 받아들이는 '몸'을 긍정하는 일이다. 이제껏 그저 질병이라고 여겼던, 몸을 짜증나는 것으로, 예민한 것으로 만들었던, 불면증, 거식증, 폭식증 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역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새롭게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다시 봐야 한다.

하지만 끔찍한 기억들이 남아있는 내 몸을 긍정하고 그것과 새롭게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끊임없이 내 몸을 내 자아와 분리시키려하고, 그럼으로써 위안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내 자아로부터 몸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 또한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끊임없이 한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트라우마가 단순히 생각하기 싫은 기억의 차원이 아닌 것은 그 기억들이 온몸에 그리고 나의 정체성과 연관된 것이며, 삶의 어느부분에서 어떻게 무엇이 그 기억들을 재현하고, 또 내가 어떻게 그 순간에 반응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의 저자가 서술해 놓은 자신의 경험들이, 그 서술 자체가 이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결국 읽는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온전히 스스로의 언어로 풀어내고, 또 봉인되어 있을 것을 강요받았던 몸의 기억들도, 나의 경험으로 다시 꺼내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남은 것은 각자의 트라우마, 각자의 몸의 기억들을 건강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올바른 '공감하기'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